

지역 매아리

고창군,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 감축사업 중점 추진

고창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수송부

군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은 올해 180여대를 조기폐차 지원했고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20여대 이상 폐차지원에

또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내년 보급대수는 총 10대이며(전년대비 250% 증가)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사업은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소형 경유차를 폐차 후 LPG신차 구입하는 경우 500만원(사업물량 5대)을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도로·수송분야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행안면 푸른건설 연말연시 사랑의 쌀 기부

푸른건설(대표 최정)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달라며 백미 50포(100만 원 상당)를 행안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최정 대표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남철 행안면장은 "행안 면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은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계층 가정에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 하기로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첨단산단 바이오엔 신기술 이용 장염치료제 개발

로타바이러스 장염 치료기술 기반... 제품허가절차 진행 중

전북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부 산하)에서 강황의 주요성분인 커큐민을 활용한 수용성 '커큐민-감초사포닌 복합체'를 개발, 이 신기술이 저렴한 가격의 로타바이러스(Rotavirus) 장염 치료제 개발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읍 첨단산단 내 입주기업 바이오엔(대표 김영철)은 "로타바이러스 장염의 치료기술을 기반으로 전임상실험(동물실험)을 완료했다"며 현재는 임상시험(총 3상까지 진행해야 허가조건 완료)의 1단계인 '1상 실험'을 위해 대항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

한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 장염의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아동 95%가 15세 이전 1회 이상 감염된다.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위생 수준이 좋은 선진국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고 감염될 경우 구토와 고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영유아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매년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영유아 200만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45만3000명이 숨지는 심각한 질환이다.

바이오엔(주)는 수용성 '커큐민-감초사포닌 복합체'의 원천기술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아 자체개발 장비로 대량생산에 성공

했고 비로소 치료제의 제품화에 나서게 됐다.

실험동물에게 로타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설사를 유도한 뒤 개발된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5일 만에 치료효과가 나타남으로써 효능이 입증된 전임상실험까지 마쳤다.

한편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게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인 S가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2상 실험까지 완료한 바 있다.

바이오엔의 치료제까지 허가 절차를 거쳐 제품화된다면 로타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백신과 함께 치료에도 획기적 전기가 되고 가격 부담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AI 차단방역 총력

고창군이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거점소독시설(3개소)과 이동통제초소(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방역소독과 출입 통제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U자형 소독기의 결점을 보완한 터널형 방역장비를 설치해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 대비하고 소독수 비산 방지로 방역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AI차단방역은 축산농가를 포함한 군민들의 협조가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전체 마을에 마을

방송과 고창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해 AI발생 시 행동지침 등을 주민들에게 평상시 전파 교육했으며,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AI 방역조치사항을 전파하면서 적극적인 차단방역으로 AI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축산농가 방문자제, 각종행사, 모임 등을 자제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AI차단에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경험과 노하우 통해 성공적 축제 만들 것"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 위원 위촉

대한민국 최고 축제인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지난 6일 군청회의실에서 제전위원회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실 축제 제전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마실 축제 제전위원회는 유관기관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 70명으로 구성, 위원장으로 이석기 전(마실축제 사무국장)을 선임, 앞으로 2년 동안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를 이끌어 간다. 이석기 제전위원장은 "훌륭한 위

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며 미약하지만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성공적인 부안오복마실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종규 군수는 "마실 축제제전위원회의 인원도 작년보다 늘었고 무엇보다 젊고 유능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전국 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오복마실축제는 올해 2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도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현재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추천되어 선정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망한 축제가 되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전위원회에서는 내년 오복마실축제를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열기로 확정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종합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

2017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정읍시의 내부청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7.70점을 얻었다.

순위로 보면 전국 75개 시 중 4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10단계 오른 31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5단계 오른 6위이다.

내부청렴도도 8.19점으로, 전년 대비 0.27점 올라 전북도 내 시부 1위, 전국 75개 시부 중 5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처럼 시의 청렴도가 크게 오른 것은 '부패 Zero! Clean 정읍!'을 목표로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덕분이다. 시는 올해 초 전 직원의 청렴사약을 시작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에 대한 청렴문자 메시지 전송, 청렴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외부 감사 초빙 특강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 추진, 단체장 청렴 메시지 상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다.

김생기 시장은 "내부청렴도는 공직 안팎 소통과 공감 확산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외부청렴도는 기대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외부청렴도 평가 항목의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전개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한서요양병원 단품미인쌀 이용 현판식

정읍시는 지난 6일 정읍한서요양병원(이하 한서병원)에서 단품미인쌀 이용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이용호 한서병원 원장, 통합RPO와 지역기관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도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현재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추천되어 선정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망한 축제가 되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전위원회에서는 내년 오복마실축제를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열기로 확정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연간 1억여원 상당의 쌀 5만400kg을 소비, 단품미인쌀 관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에서 생산된 쌀 이용 촉진과 시 대표 브랜드인 단품미인쌀 관료 확대 일환으로 현판식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과 관료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단품미인쌀은 GAP인증 획득한 5개 단지 900ha에서 생산된다. 매년 약정 체결농가를 대상으로 보급농가를 지원하여 품종 통일은 물론 타 품종 혼입을 예방함으로써 품질 확보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더 좋은 고품질 단품미인쌀 생산을 위해 참여 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실천토록해서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쌀을 생산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만감류 실증시험 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7일 아열대과수인 만감류 실증시험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회에서는 한라봉 등 감류의 품종 특성과 '산합량'을 낮추기 위한 시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농가들은 기술센터 내 아열대 과수 실증 시험하우스로 자리를 옮겨 재배 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했다.

아열대 과수 재배와 관련, 기술센터는 2010년부터 재배시험을 통해 작목별

특성과 난방비 절감 방법 등을 찾았고 2013년부터 시험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기술센터는 목표 지원과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을 펼치고, 시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배를 통해 얻은 재배기술 지도에 주력해왔다.

한편 정읍지역에는 16농가가 4.8ha에 전례해와 한라봉 레드향 등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Ojibju.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and their benefi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and prices.